

세계기도정보

[영국]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 관련 개정안 논란
 [세계] 아시아·아프리카 장애 아동들에게 성경 약 9만 권 제공
 [폴란드] 대선, '낙태·성소수자 이념 반대' 보수 후보 승리
 [중국] 중국 당국, 이른비언약교회 탄압 여전...교회 성도 집에서 강제 퇴거
 [중동] 이스라엘, 이란 무기고·우라늄 농축 시설 파괴...이란은 보복공습
 [인도] 여객기 추락사고 사망자 최소 265명...영국인 1명 기적 생존
 [파키스탄] 파키스탄 대통령, 이슬라마바드서 아동결혼 금지법 서명
 [미국] 아이티 고아원 운영 미국인,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징역 210년형 선고
 [영국] 영국 청소년 45%,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가정 해체 원인은 이혼이 아닌 동거
 [말리] 말리, 정당 해산 후 기독교 박해 우려 심화
 [소말리아] 소말리아, 기독교로 회심한 청년 무슬림 가정에 버림 받아



2025. 6
 멕시코에서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어린이는 용감하다(페루, 아마존).

6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오전에 정글 지역 6개 노회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었다. 이곳 지역은 스페인어를 비롯한 크게 세 가지 부족어가 통용되고 있다. 더듬거리며 현지 부족어를 하는 나를 보고 이들이 웃는다. 그리고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스페인어를 다시 저희 부족어로 번역하려 하니 힘드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족어를 스페인어로 다시 머리에서 생각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눌하더라도 이해주세요.” 정글 노회 모임을 마치고 한 노회장을 따라 1시간 반을 들어갔다. 그는 꼭 자신의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길 원했다. 길은 갈수록 험하다. 도대체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싶었지만, 비포장도로라도 길이 있으니 분명 사람들이 살고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길 끝에 천명 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나왔다.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왔으며, 감자와 함께 짐승 내장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해 주었다. 포크도 나이프도 없다. 난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그러나 이름 모를 내장들은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났다. 그래도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사랑이니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힘써 먹고, 예배당으로 향했다.

교회 아이들이 내 주위에 모여든다. 어린아이들은 현지 방언을 사용하지 못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꼭 스페인어를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현지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내가 짧은 현지 방언으로 인사를 나누자 모두 놀라며 자신들의 인생에 처음으로 접하는 외국인인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내 주위에 앉아 계속 나에게 질문한다. “정말 당신은 눈이 작군요. 당신의 아내도 자녀도 당신처럼 눈이 작습니까?” “하하하 난 그래도 한국에서 눈이 작은 편이 아니!” 통역을 동원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정글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별들이 아름답다. 그러나 고불고불한 길에 힘써 먹은 내장들이 뒤섞이며, 멀미가 심하게 난다. 그래도 난 행복하다.

늦어진 예배

5월 31일 토요일, 이른 아침 과달라하라를 떠나 멕시코 시티를 거쳐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밤 11시 도착했다. 내일 새벽 5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야쿠초로 가서 다시 차량으로 6시간 이동해 아마존이 시작하는 피차리로 가야 한다. 그런데 5월 31일부로 기존 리마 공항이 폐쇄가 되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공항에서 모든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면서 6월 1일 주일 새벽 5시 출발 비행기가 오후 3시 연기되었다. 그날 주일 오후는 아야쿠초에서 피차리로 가는 길에 있는 ‘땀보’라는 곳에서 노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랑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이다. 현재 일어난 상황을 총회장에게 이야기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나 없이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6월 1일 오후 5시에 아야쿠초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총회장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땀보 지역 노회에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며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시죠.” 오후 5시 예배인도 가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린다. 마음이 불편하다. “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자 총회장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그곳에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모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8시 45분에 땀보지역 예배당에 도착했다. 예배당 가득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기다리던 노회 임원들과 성도들이 나를 기쁨으로 반긴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11시 반까지 말씀을 나누었다.

땀보는 전 세계 감자의 시초가 된 곳이다. 이곳에 있는 감자의 종류만 무려 3천 종류라고 한다. 놀랍다. 그리고 이곳 안데스산맥에는 옥수수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는 이곳 페루 사역을 통해 절감한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다녀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기후와 문화가 이곳에 공존한다. 아마존 지역 교회도 그리고 안데스산맥의 지역 교회도 대부분 현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언제 나 설교는 스페인어에서 다시 현지 방언으로 통역을 했다.

상대적 추위

6월 17일 화요일, 아마존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오늘은 다시 아야쿠초로 돌아가서 다시 우앙카벨리카라는 곳으로 가는 날이다. 너무 먼 길이라 하루에 가지 못하고 나는 이틀에 걸쳐 우앙카벨리카로 가기로 했다.

남반구인 페루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다. 그러나 매일 비가 내리던 아마존은 여전히 덥고 습했다. 더위를 뒤로 한 채 안데스산맥으로 들어간다. 험준한 안데스산맥, 비포장 외길을 달리는 운전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레이스처럼 달린다. 5천 미터가 넘는 산맥에 이르자 이곳은 눈으로 덮여있다.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들어오자, 상상 이상의 추위가 느껴진다. 겨우 영하 1도인데 단 하루이틀만의 온도차가 30도 이상 나니 내가 준비한 초겨울 옷이 아무 소용이 없다. 5천 미터가 넘는 산맥을 넘어 3,800미터의 우앙카벨리카 마을에 도착했다. 안데스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내 기억에 남아있는 한국의 70년대도 이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곳 산맥에도, 아마존 정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 감사하다.

6월 기도제목:

1.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장로교 총회 기간 나를 통해 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2.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 베라크루스- 치아파스- 메리다 방문을 통해, 내년에 있을 주일학교 강습회, 어린이 전도 집회 및 어른 전도 집회에 우리와 함께 사역할 준비된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